

연유로 因해 後에 漣川地方의 寺刹로 移轉되어 使用하던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그리고 同盤子의 銘文中에 重十三斤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中品으로서도 몹시 重量이 무거운 것 中에 속한다고 본다.
實測値는 徑三七cm 側幅六·五m로서 保存이 良好하다.

龍仁 漁肥里의 三層石塔

李 殷 昌

一九六四年 가을에 京畿道 龍仁地方의 佛跡를 調査한 바 二東面 漁肥里 逸石寺址에서 三層石塔 一基를 調査하였는데 參考할만한 것임으로 이에 紹介한다.

一、寺址

漁肥里部落의 西便에 있는 田畠一帶가 寺址로 뒤는 山峰을 依支하여 平坦한 臺地를 形成하고 앞으로는 들과 시내를 隔하여 案山과 相對하고 있다. 寺址에는 瓦片和 礎石이 散在하고 발가운데에 問題의 三層石塔 一基가 半倒壞의 狀態로 있고 이 石塔 東北쪽에 草屋 一棟이 있어 그 안



에는 頭部를 喪失한 石佛座像 一軀가 있으며 이 草屋 앞에는 石造座臺殘石과 石燈殘石 등이 있는데 이곳 三層石塔과 草屋內의 石佛座像은 漁肥里部落民들의 信仰의 對象이 되며 그리고 保護하

고 있다.

二、三層石塔

石塔은 元來 重基壇과 三層塔身과 相輪部로 形成된 것인데 基壇部는 埋沒되고 塔身은 第三層屋身이 喪失되었으며 相輪部는 全部 없어졌다. 그런데 現存部分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下層基壇은 埋沒로 未詳하나 下臺甲石의 上面은 鮮麗한 線을 보이는 斜菱線과 直角線으로 된 二層節을 表出하여 基壇上臺 中石을 받고 있다. 上臺中石은 四枚板石으로 짜이었고 各面에 三個童子柱가 있는데 모두 破壞되어 塔體가 東南便으로 기울었으며 南部 一枚는 缺失되었다. 이 上臺中石위에 二枚板石으로 된 上臺甲石을 二字形으로 놓아 高廣한 上層基壇을 造成하였는데 甲石은 下部에 副椽을 造出시키었고 上部는 若干의 勾配表示가 있으며 그리고 上臺甲石 위에 二層節의 「물딩」이 表示되었는데 또 別個石으로 加工한 「屋身괴임」이 施設되었음은 特殊한 點이라 하겠다. 이 「屋身괴임」은 一枚板石으로 下部는 彎曲線으로 되고 上部는 二層節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初層塔身에 限하여 別個石으로 된 「屋身괴임」을 特設하는 例는 羅末·麗初^①의 石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聖住寺址石塔^②과 普願寺址^③石塔 等に 相通되는 것이다.

塔身은 初層은 長大하고 二層以上은 短縮되어 安全感을 주고 있다. 屋身은 一個石으로 四隅柱가 表示되고 屋蓋 또한 一個石으로 두터운 「屋蓋石받침(持送)」이 四層級으로 統一되고 四區落水面이 平薄하고 曲線勾配를 이루었으며 檐下는 直線이고 四隅角은 笠形反轉을 보이고 있어서 輕快한 情趣를 주고 있는데 이는 新羅石塔의 典型的 通例라 하겠다. 그리고 各層의 屋蓋石의 頂上에 二層級의 屋身괴임이 表示되었으므로 一、三層까지 初層과 같은 樣式으로 造成되었는 바 三層屋身은 없어지고 石燈 仰蓮石이 놓였다. 또 相輪部도 全部 없어져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없다. 以上 記述한 樣式傾向의 ① 高廣한 基壇위에 適當한 短縮比例로 짜인 塔身을 놓아 安全感을 주는 體貌와 ② 初層塔身に 別個石의 「屋身괴임」들이 特設된 點과 ③ 銳利한 檐下の 直線과 笠形反轉으로 輕快한 感覺을 주는 手法等은 本塔의 特色이며 이 樣式上으로 미루어 보아 新羅末期下

代의 秀作이라 推定되며 저 保寧 聖住寺址石塔의 樣式系列에 두어야 할 것이다.

實測值 總高(現存)約3m

1、基壇部

• 基壇下臺……未詳 • 基壇上臺 上臺中石……高六〇cm 幅九八cm 甲石……厚七cm 幅(長)一一七cm 副椽一一三cm 屋身괴임……厚一三cm 一邊長七〇cm (上部層節一層六四cm 二層六〇cm)

2、塔身部

• 一層 屋身石……高五一cm 幅(一邊長)五六cm 屋蓋石……厚(高)三七cm 檐下長(一邊)一〇六cm 頂上一邊長五四cm
 • 二層 屋身石……高一八cm 幅(一邊長)四四cm 屋蓋石……厚(高)三三cm 檐下長(一邊)七八cm 頂上長四四cm
 • 三層 屋身石……缺失 屋蓋石……厚(高)二八cm 檐下長(一邊)七三cm 頂上一邊長三二cm

3、相輪部(缺失)

三、其他石造物

1、石佛座像……草屋內에 奉安된 것이니 頭部는 喪失되고 現存은 後補한 것이다. 左肩偏袒의 法衣를 着하였는데 衣文은 굵고 雄健하며 結跏趺座에 觸地降魔印을 結하였으니 如來像인 것 같고 手法은 前記石塔과 同時代인 新羅末頃의 造成으로 推定된다.

2、石造佛座臺片……其一是 前記草屋 앞에서 있는 槐木下에 放置된 것으로 八角形의 各面에 秀麗한 眼象을 새기고 그 眼象內에는 動物을 浮刻하였고 그리고 流麗한 單瓣伏蓮紋을 彫刻한 것인즉 佛座臺의 下臺石으로 推定된다.

其二是 前記草屋의 出入門의 踏階石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破損이 甚하다. 下部에 八角形의 層節받침이 보이며 中臺石에 맞도록 하였고 複瓣仰蓮紋이 彫刻되었으니 各花瓣內에는 또 精妙한 文樣이 修飾되었으며 上面은 佛像을 安置할 수 있게 곱게 다듬어져 있는즉 佛座臺의 上臺石으로 推定된다. 中臺石은 缺失되고 上下臺石만이 殘存하는 것인

데 彫刻이 精妙하고 手法이 秀麗하여 優作에 屬하는 것으로 이는 前記石佛座像의 臺座인가 한다.

이 밖에도 石燈殘石과 其他 여러가지 石造物片이 있으나 筆者 調査當日 時間이 없어 充分한 調査를 하지 못하였다. 後日 再調査를 要하며 이곳이 水利組合의 設置 豫定地로 되어 있어 遺物을 移轉한다 하기에 于先 調査現況을 記述하여 둔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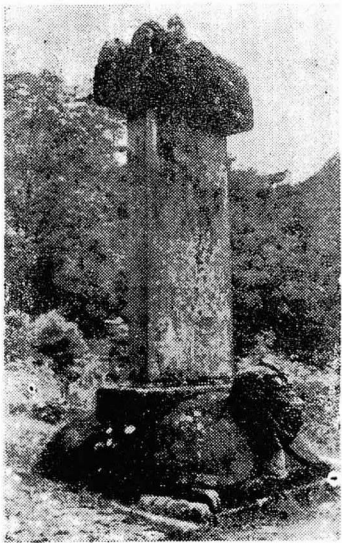
- ① 「初層屋身괴임石」의 特設例는 高麗末의 令傳寺址 普濟尊者 舍利塔에서도 볼 수 있으니 그 樣式繼承에도 注意되어야 하겠다.
- ② 국보도록 제五집 圖版九二、九三、九四 및 同解說 參照
- ③ 前掲書 圖版九五 및 同解說 參照

覺淵寺 遺物調査略報 (下)

鄭 永 鎬

二、通一大師塔碑

覺淵寺에서 寶蓋山 溪流를 따라約二十分쯤 올라가면 松林우거진 平坦한 臺地에 碑石一座가 보인다. 龜趺와 螭首를 具存한 完形이나 碑身의 銘文은 23以下가 거의 磨滅되어 哀惜하다. 一石으로 된 龜趺에는



眼象과 伏蓮의 彫刻이 整然한 碑座가 있고 六角形의 龜甲紋內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如意珠를 물고 있는 龍頭의 各部 彫刻은 雄渾하다 할 것이다. 螭首는 下面에 낮은 角形